

# 순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우수기관 선정

### 2019년 이어 2회 연속...8개 항목서 우수성 인정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운영·25개 돌봄서비스 제공

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의 충실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전문가 참여, 퇴원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 주거·보건·요양돌봄의 통합서비스 제공

에 관한 8개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공감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정책이다.

순천시는 주거와 돌봄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운영과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 식사지원, 가사돌봄, 주거편의시설 등 25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또 부서 협업과 다직종 다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순천에 맞는 돌봄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특정 계층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가족도 모두가 행복하고 더 따뜻해지는 순천형 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고흥군, 인구증가 잠재력 전국 4위로 뛰어 올랐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서 벗어나

고흥군의 인구증가 잠재력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여져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지역발전지수 평가에 따르면 인구증가 잠재력을 알 수 있는 지역재생산지수가 고흥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재생산지수는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서 2차년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가능인구비율로 산출해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고흥군은 2.43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 지수는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인구 증감추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흥군은 인구가 6만 4천명으로 전남 군단위에서는 무안군과 해남군 다음으로 많고 연령별 가입여성이 평생 동안에 낳는 출생아 수의 합계인 합계출산율도 1.44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 전남평균 1.23명보다 높다.

또 민선7기 귀향귀촌 인구도 3,251명으로 1개년 규모의 인구가 유입됐으며 도시민이 선호하는 귀농귀촌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인구증가 잠재력이 높아진 이유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과 대도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 조성'시책을 제일 먼저 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측정에서 고흥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12월에는 중앙의 한 언론사가 주관하고 8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경영브랜드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분야 경영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지역재생산지수를 통해 고흥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 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육아·보육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유턴, 아이행복, 귀향귀촌 3대전력 50개 과제를 담은 인구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해 인구감소를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수특산물 생산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체국 쇼핑물 내에 '여수시 브랜드관'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0

# 여수시, 2021년 우체국 쇼핑물 '여수시 브랜드관' 오픈 내년 1월 1일~10일까지 오픈기념 20% 할인 프로모션...15억 매출액 목표

일간 오픈기념 할인프로 모션(20% 할인)을 시작으로 설 명절, 가정의 달, 추석 명절 등 시즌별 할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브랜드관은 우체국과 여수시가 손잡고 올해 5월 우체국 온라인 쇼핑물 내에 설치됐으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5억 5천900만 원의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내년에 매출액 15억 달성을 목표로, 사업비를 올해 보다 3천800만 원 많은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참여업체도 14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업체에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콘텐츠(상세정보 이미지) 제작도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브랜드관을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여수시 브랜드관'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께서 돌산갯살김치, 간장물게장, 손두부, 거문도해풍썩떡, 고등어살, 건어물 등 다양한 여수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광양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총 8개 사업 18명...오는 1월 8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내년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월 8일까지 참여자 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공공일자리 운영을 통해 지역방역 강화는 물론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근무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일 4시간,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선발자들은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배치되어 방문객 발열체크, 출입관리, 명부작성 등 생활방역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최근 3년 이내 타 재정지원사업 2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투자일자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참여자의 가구소득, 재산상황, 실업·폐업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1월 22일까지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천연기념물 황새 38마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천만서 월동

### 매년 멸종위기종 조류 개체수 갱신...국내 최대 조류 서식지 입증

순천시는 최근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황새 38마리가 순천만에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조류로 몸길이는 110 ~ 150cm이며, 세계적으로 약 2,500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 지정된 새이다.

매년 겨울 순천만에서 황새 1~6마리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30마리 이상 대규모로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8마리 중 36마리는 야생 황새이며, 나머지 2마리는 C20·B95 번호가 새겨진 가라지를 부착한 개체로 올해 태어난 황새로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황새공원 자료에 따르면 12월 전국 황새 동시조사에서 황새 90마리가 조사되었다. 이중 42%가 순천만에서 관찰된 것이다. 최근 한파를 피해 풍부한 먹이와 안전한 먹이터를 찾아 순천만으로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일 8명의 현장 모니터링팀을 배치하여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자연하천, 농경지, 염습지, 갯벌 등 생태계형이 다양한 세계적인 습지이다."면서 "국내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아 흑두루미 뿐만 아니라 황새 등 국내 멸종위기종 조류를 타겟종으로 한 습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순천만은 국내 최대 멸종위기종 조류 서식지이며, 올해 흑두루미 2,822, 가창오리 20만마리, 노랑부리저어새 142마리가 관찰되면서 매년 최대 개체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